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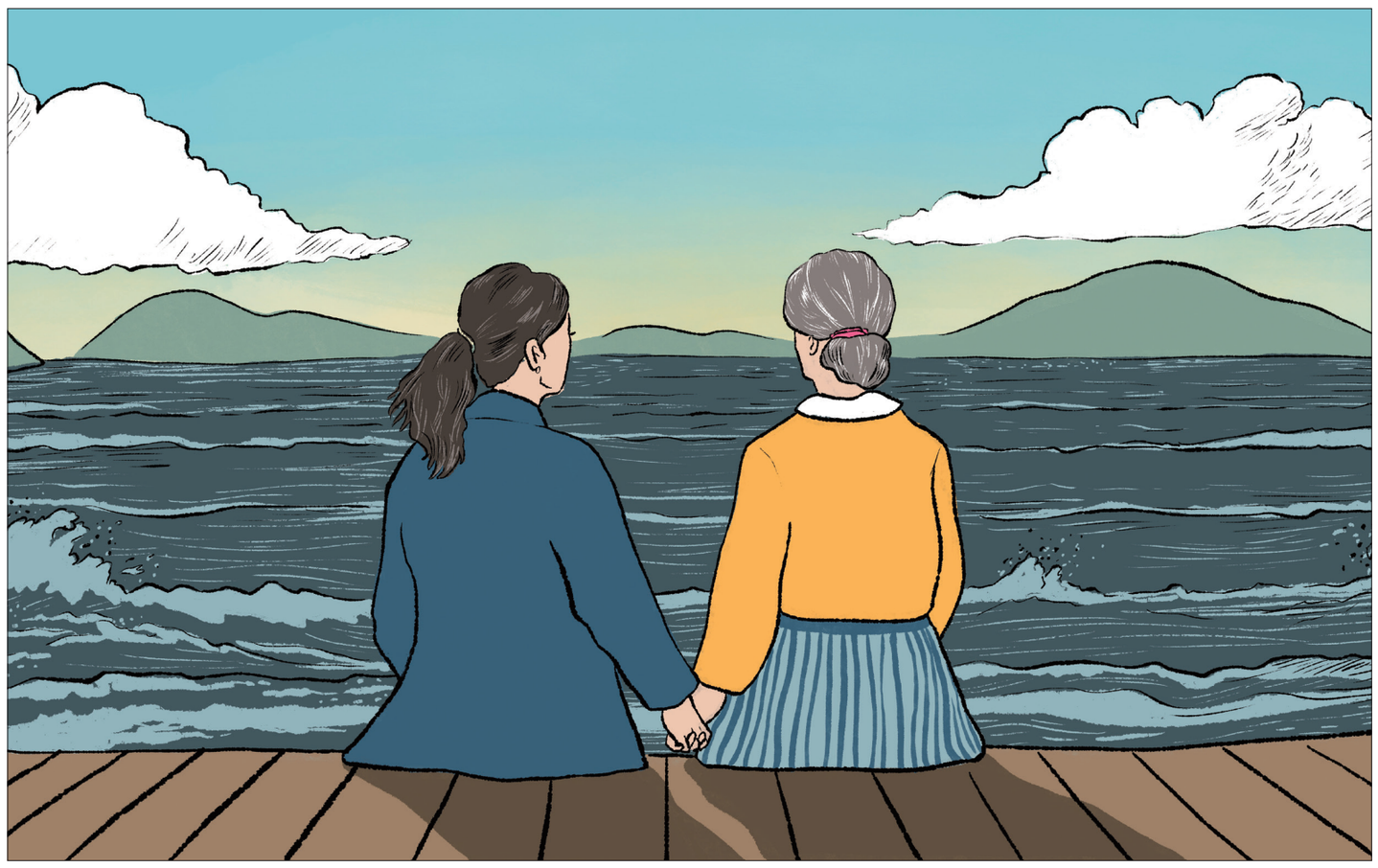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② 미래본부 사무총장상
최○○ 씨

성품이 차분한 작은며느리와
명절음식 준비하며 생긴 갈등
잊으려 노력해도 계속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딱딱하게 대해

유튜브 통해 화쟁사상 접하고
갈등 자체엔 문제없다고 느껴
며느리 입장도 어느새 이해돼
함께 생각 나누며 관계도 회복



그림·김상규

우리집 작은며느리는 성품이 바르고 참한 사람이다. 성격이 활달하고 급한 나와 달리, 며느리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정을 지녔다. 나는 며느리와 도란도란 어울리며 좋은 고부사이로 지내고 싶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나의 바람대로 며느리 역시 내게 살갑게 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생긴 후부터 조금씩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를 보고 우리집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면서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따르지 않고 요즘 세상을 운운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자, 시어머니인 내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렇지만 구태여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에게 불편한 내색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시어머니가 알려주면 그냥 알았다고 말하고 따르면 될 텐데"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 후 나는 불쾌했던 감정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커져갔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자,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굉장히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때 그냥 따르라고 했던 나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변해버린 내 태도 때문인지 며느리 역시 나를 데면데면하게 대하고 거리를 둔다는 것이 느껴졌다.

한번은 아들이 나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혹시 며느리와 무슨 갈등이 있었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들어 부쩍 사이가 소원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새아기와 나 사이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라고 말하며 갈등을 숨겼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나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어서였다.

얼마 후 유튜브로 불교방송을 보다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불교법문은 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나의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원효 스님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끊임없이 각축하고 항쟁하는 갈등의 시대에 화쟁사상을 내세워 사회통합을 꾀한 분이다. 화쟁사상은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지혜이며, 다양한 관점과 열린 자세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순과 대립을 푸는 대화합의 정신이다.

원효 스님은 화쟁의 논리를 사물에 비유하여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말하지만, 원효 스님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립과 논쟁을 포용해 화합을 하자고 강조했다. 화쟁사상은 단순한 화해이론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모아놓음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소통이론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불자로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화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이번만큼 내 가슴속에 깊이 와닿은 적이 없었다.

나는 화쟁에 관한 불교법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들을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었다.

첫째,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무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갈등을 숨기거나 모른 척 넘기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서 푸는 것이 더 중요했다.

둘째, 며느리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화쟁사상은 '하나이지만 모든 다른 것이고, 다르지만 모두가 같다'라는 가르침을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우리집에서 오랜 시간 고수해온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나와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며느리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갈등 관계에서만큼은 시시비비적 관점이 옳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의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더욱더 설득력이 부족했다.

셋째, 감정을 분리해서 다뤄야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먼저 감정을 분리해 놓아야 소통도 하고 갈등도 해소할 수가 있는 법이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 며느리와의 갈등이 우리의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화쟁사상 안에 들어 있었다. 화쟁을 공부한 후 소통의 방법을 깨달은 나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화쟁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마음먹었다.

그 첫 번째가 갈등의 당사자인 며느리를 갈등의 해결자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한 감정과 갈등을 풀기 위해 직접 며느리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일단 명절 때의 일로 서먹해진 사이를 풀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각과 감정을 들었다. 얘기를 찬찬히 듣고 보니 화쟁에서 말한 대로 며느리의 방식도 틀린 것이 아니었다.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눈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의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고 나니 감정이 한결 후련해졌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하는 방식을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했던 걸 사과했다. 그러자 며느리도 자신의 태도가 윗사람 입장에선 무례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었다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사이에 서먹하고 불편했던 감정은 이미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

나와 며느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 자신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고수하는 대신, 함께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화쟁은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지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이기는 길이었다. 그 후 나와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다. 또한 섭섭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들 때면 속에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게 되었다. 며느리와 만나 솔직하게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소통하고 지내는 일은 내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화쟁을 실천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회통의 길을 열 수 있다. 화쟁사상은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성격과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화쟁위원회가 공모한 수기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이 담겨있어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